



주 제:	“가장 중요한 것”	“연중 제 16 주일 (다해)”	2007년 7월 22일
복음 묵상:	루카 10,38-42	창세 18,1-10	콜로 1,24-28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랜 길을 걸어온 손님들에게 음식과 쉼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에는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구원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머물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실천은 걸치레가 되기 쉽고 자기만족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전주 공현식 신부)

공지사항

1. 8 월달 본당에서 있게 될 **복가주 성령대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되도록 **목주의 9 일 기도를 6월 25일 부터 8월 17일 까지 54일간** 바칩니다. 여러분의 중재기도로서 참석하시는 많은분들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에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 한번씩은 꼭 바쳐 주십시오.
2. **복가주 성령대회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권유해 주시고 모든 성령 가족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음 [루카 10,25-37]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종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말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에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 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에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 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 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 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이기심과는 거리가 먼 인정 가득한 말씨는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좋은 글 중에서